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격동의 중국 현대사와 마오쩌둥(毛澤東)

최은진

I. 시작하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마오쩌둥(모택동, 1893.12- 1976.9)은 여전히 중국에서 추앙받고 있으며 신격화되기도 함

마오의 생가- 후난성 농촌 지역은 관광지가 됨
마오시기의 노래와 활동 등에 대한 노스텔지어적 반응
개혁개방의 부정적 결과인 빈부격차의 심화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 마오시대에 대한 향수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인민공사를 통해 공산주의 실현을 목표로 매진
개혁개방이후 마오시대 특히 문화대혁명시기는 부정적 평가를 받음(성과는 70%, 과오 30%)

---봉건적 의식과 잔재가 아직 자본주의적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작용하여 벌어진 과격하고 몽상적인 시기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현재 개혁개방시기는 공산당의 일당통치를 유지하면서 시장자본주의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

이하에서 마오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전개로 중국 역사의 일면을 살펴보자.

II. 마오시대 (1949-1976)

1.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중국공산당은 농민의 전폭적 지지 하에 정권을 수립하여 새로운 근대국민

국가 건설에 발을 내디뎠지만 항일과 내전을 겪은 피폐한 상태에서 심각한 후진성과 빈곤을 해결해야 했다. 전통적인 지방주의의 잔존, 낙후한 농업과 후진적 공업, 원시적 통신과 운송체계, 국토와 인구의 방대함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의 창출과 경제건설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공산당은 건국 초기 사회주의로의 직접 이행을 유보하고 자본주의 경제와의 장기적인 공존에 의한 공업화 추진을 도모했다. 건국 직전 발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방침에 따라 3년 회복, 10년 발전이라는 장기기간으로 설정된 신민주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노동자와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의 경제적 이익,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신민주주의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공업국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으로도 공산당의 지도를 내세우지 않고 노동자와 농민, 민주적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인민민주독재인 신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옌안시기 경험과 내전기의 시행착오를 통해 도출된 공산당, 정부, 군대의 주요 구성부분의 권력 분할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갖춘 신정부가 구성된 것은 전국을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다. 외관상 전국적인 정권이 구성되었는데 정부는 5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정점에 있었고 마오쩌둥이 주석이었으며 부주석 6명 가운데 쑨원의 미망인 쑹칭링(宋慶齡)을 포함한 3명은 비공산당원으로 신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비추어졌다. 1954년 국무원으로 개편되기 전 정무원은 저우언라이가 총리로 관할하면서 24개의 부서를 설치하고 그 하에 성(省), 현(縣), 향(鄉)의 중앙집권적 관료기구를 재편하였는데 11명의 부장이 역시 비공산당원이었으며 중앙인민정부위원회와 업무를 조절했다.

1950년 린바오(林彪)의 군대가 하이난(海南) 섬을 점령하고 신장(新疆)은 1950년 3월, 1951년 티벳 점령으로 영토의 통일을 달성해 나갔지만 타이완은 1950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제 7함대의 파견으로 점령이 좌절되었다. 소련은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는 가운데 타이완과 미국,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국내외의 긴장은 여전히 조성되어 있었다. 국민당의 잔여세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반혁명적 충동은 약한 편이었지만 국내의 질서는 1954년까지 실질적으로는 인민해방군과 군내의 공안군의 지방 통제로 유지되었다. 인민해방군은 가오강과 라오수스가 숙청되는 시기까지 화북지구, 동북지구, 서북

지구, 화동지구, 중남지구, 서남지구의 6개 거대구역으로 나뉘어 동북지구는 가오강(高崗), 서북지구는 평더화이(彭德懷), 화동지구는 라오수스(饒漱石), 중남지구는 린바오, 서남지구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중요직책을 담당하도록 조직되었다.

공산당은 정부와 군의 활동을 조율하고 이념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였는데 1949년 10월 444만 8080명의 당원을 보유하며 점차 그 수를 확대해 나갔다. 이들 당원은 모든 정부기구, 대중조직, 법원, 각급 학교, 군대 등 사회 전체로 퍼져 들어갔으며 당의 지역 지부는 중앙위원회에 의해 상부에서 조정되었다. 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44명으로 14명이 정치국을 구성하고 5명의 상무위원회가 구성되어 권력이 집중되었다.¹⁾ 당조직과 국가행정기관은 구별은 있으나 중복되어 연결되어 마오쩌둥의 경우 공산당 주석이면서 인민공화국의 주석이기도 했다. 또한 공산당은 국가전체를 결합시키는 대중조직망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대표적 대중조직으로는 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총노동조합, 전국학생연합회 등으로 이러한 대중조직을 통해 신정부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질서가 마비된 도시의 회복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 도시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던 공산당이었지만 대중조직을 활용하고 준사법적 기능과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주민위원회를 1952년 설립하며 인플레이션의 억제, 아편과 마약, 매춘, 도박 등의 문제를 바로 해결했으며 외국인을 1950년 말까지 추방하면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양시켰다.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공산당이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애국운동을 일으켜 민족주의가 고양된 것도 중국공산당이 급진적 정책추진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공산당은 도시를 자본주의의 퇴폐적 성향을 지닌 곳이면서 자본주의 경제력을 회복시켜야하는 곳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에 오히려 안 이례 시행해 온 대중집회와 비난운동과 같은 반혁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951년 사상개조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의 교육계, 예술계 등 지식인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통해 생산을 회복하려는 정책 속에서 관

료자본으로 판정된 것은 몰수해 국유화하면서도 민족자본가의 기업경영은 인정하여 1953년 전체 공업생산량의 3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51년 말에서 1952년까지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삼반(三反)운동(독직, 낭비, 관료주의 반대), 자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오반(五反)운동(뇌물수수, 탈세, 국가자재 절도, 부실 공사, 경제정보 유출)을 전개하면서 도시의 관료와 자본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와의 공존의 위험성을 제거하며 공산당의 장악력을 증대하였다. 1953년초 도시의 민간행정과 경제, 교육기관은 공산당과 국가 기관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국가가 가격과 임금, 노동조건을 결정하되 자본가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본가의 공장경영과 국가통제가 결합된 1953년의 공사합영방식은 1956년 완전한 국유화로 귀결되었다.

농촌에서는 내전기에 시작했던 토지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지만 완화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 류사오치가 <토지개혁법>을 반포하였는데 농촌의 생산력 발전을 통한 공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온건한 것으로 도시의 자본가와 달리 기생계급에 불과한 지주층을 제거하되 농촌의 생산력을 담보하는 부농을 온존시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지주에게 몰수된 토지는 빈농과 고농에게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고 부농과 중농도 토지소유 상한선만 설정하고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여 농업생산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3억 농민인 7억무畝를 분배 받았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실시된 토지개혁은 초기에는 비교적 온건히 진행되었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국내의 농촌에 근거한 지주세력의 저항을 우려하여 1951년 <반혁명처벌조례>가 발표되자 지주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어 공포분위기 속에서 1952년 토지개혁운동이 완료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봉건적 지주소작제가 폐지되고 농가의 경영규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농촌의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정치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토지개혁의 과정에서 농민과 공산당의 신뢰가 나타나 국가의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어 농업의 경제적 잉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촌경제의 눈에 띄지 않는 농업생산량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농촌의 자본주의적 사회현상의 출현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집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 5명의 상무위원은 마오쩌둥(毛澤東), 류사오치(劉少奇),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천원(陳雲)이었다.

장기간의 자본주의 공업화 단계를 고려한 신민주주의는 1953년 사회주의과도기 총노선의 선포로 단기간에 끝나게 된다. 한국전쟁으로 급격한 사회개조를 진행한 중국공산당은 서구와의 고립 속에서 1953년 소련모델을 모방한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며 계획경제를 시행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공업화,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제창된 1차 5개년 계획은 1956년 이미 예상 성장률 14.7%를 넘어선 18%의 공업성장을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소련의 차관과 기술자 파견등의 원조를 약속받고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가 설립되고 국무원의 상무위원회 등 수직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강철, 석탄, 선철 등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1954년 정무원(政務院)은 국무원으로 개편되고 6개의 군구(軍區)가 폐지되어 군대가 국무원의 국방부의 관할 하에 들어가며 21개 성과 5개의 자치구 2개의 직할시, 2200여개의 현정부, 100만여개의 공산당 지부가 편제되고 도시는 單位별로 인민들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중앙집권화 과정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1953년부터 1954년 가오강과 라오수스가 숙청되고 관련 관료들에 대한 숙반(肅反)운동(숨은 반혁명분자 박멸운동)과 1955년 7월 자유로운 창작을 주장한 작가 후평(胡平)에 대한 문화부 저우양(周揚)이 탄압에 관여한 후평사건 등으로 전개된다. 저우언라이(주은래)는 외교적으로는 1955년 봄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의 인도네시아 반동회의에 참가하여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화교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였고 공산당은 소수민족 54개 3천만명의 지방당원의 모집과 당교육도 전개하여 1957년에는 40만명의 공산당원과 공산주의 청년단 60만명을 확보하였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공업 건설의 자원을 농촌에서 마련하고 동시에 농촌의 계급분화를 막기 위해 농업 집단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농민은 당시 곡물량의 1/4를 싼가격에 국가에 판매하여 도시에 낮은 가격에 식량을 제공하여 공업의 원시적 축적을 이루어갔다. 이러한 국가의 징세나 양곡수매를 용이하게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 집단화는 상호부조의 방식인 호조조(互助組)(6-7호)에서 확대된 상호부조에서 출자한 토지와 노동력에 의해 분배를 받는 반(半)사회주의적인 초급합작사(20-30호)로 나아갔다. 1955년 7월 마오쩌둥(毛澤東)은 <농업합작화에 관한 문제>를

제출하여 농민의 열정에 의지하여 집단화를 추진하라고 독촉하자 1956년 여름 농촌인구의 90%가량이 48만 5천개의 고급합작사의 구성원이 되었다. 노동량에 의해 분배를 받게 되는 사회주의 방식인 고급합작사(200호)는 대다수 농민에게 자신의 토지를 잃게 하는 실망을 안기는 것이었지만 아직 자본가형 농민이 견고하게 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저항과 폭력이 없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 이러한 집단화는 집단농장 운영에서 나타난 회계와 관리의 능력의 결여, 노동점수의 막대한 지침에 따른 농민의 의욕 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기대만큼의 생산력의 향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다시 농촌의 자류지에서 경작을 용인하고 집단농장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수매 곡물의 생산량이 조달되지 못하고 농촌에서 부유한 농민이 생겨나게 되면서 농촌의 집단화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56년 도시경제의 국유화와 농촌의 집단화가 이루어지자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달성한 사회주의체제의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공산당의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후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비판이 강화되고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에서 동요가 일어나 1956년 10월 소련군이 헝가리의 소요를 진압하자 소련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을 벗어나고자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지식인들의 기술과 과학발전의 적극적 참여를 주창하며 쌍백운동(雙百운동)이 전개되었다. 문화의 장에서 백화제방(百花齊放), 과학의 장에서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쌍백운동(雙百운동)은 동유럽의 동요에서 나타난 모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파의 인사와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독려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위촉되었던 지식인들의 공산당 통치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자 마오쩌둥의 용인 하에 1957년 6월부터 비판적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반우파(反右派)투쟁으로 전환되었다. 55만명의 지식인들이 우파로 몰아 하방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 여기엔 민주당의 지도자 립룽지(羅隆基)와 장바이전(章伯鈞) 및 팡리즈(方勵之)와 류빈옌(劉賓雁) 및 덩링(丁玲)도 포함되어 있었다. 쌍백운동과 반우파투쟁의 결과 1957년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당원도 하방되면서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의 여파로 권력이 약화되었던 마오쩌둥은 다시 공산당 내에서의 권력을 확고히 하게 되어

소련모델과 다른 대약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신민주주의의 장기적 회복과 발전의 기간에서 달성해야 했던 다양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경제적 평등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간과되고 묻혀 버렸다.

맹방이던 소련과 인도와의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마오쩌둥의 연속혁명의 논리에 기반한 대약진(大躍進)운동이 1957년부터 전개되었다. 외부의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농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공업을 창출하고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열정을 고취시켜 생산력을 확대하려는 이 대약진 운동은 당시 중국의 상황에서 경제 근대화를 급속히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약진 운동은 인력을 동원하여 철강과 에너지, 식량을 증산하자는 운동으로 15년 안에 세계 2위 경제대국 영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6천만 명을 대규모 수리건설운동에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력으로 산업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대외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던 상태에서 인간의 정신력에 의지해 대생산, 사회개조를 이룩하고자 했던 대약진운동은 1차 5개년계획의 결과 문제가 된 농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업화와 도시의 중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두다리 걷기 정책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하부의 거짓보고에 따른 상부의 목표 달성의 조정으로 15년에 달성해야 했던 목표를 3년만에 달성한 결과는 실제로는 철강증산을 위해 수 많은 농민들이 철제 농기구까지 토착 용광로를 활용해 철을 증산시켰지만 쓸모없을 뿐이었다.

농촌에서는 보다 대규모의 노동력 동원에 용이한 대형 합작사인 인민공사(人民公社)가 조직되었는데 1958년 8월에서 그해 말까지 74만개였던 합작사를 26,578개의 인민공사로 개편하게 하여 전체 농가의 99%가 참여하고 4600호를 포함한 거대한 규모의 사회 기본단위를 형성했다. 인민공사는 실제 농업과 공업, 상업, 교육, 군사의 기능을 관장하는 등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조직으로 간주되었지만 평균주의에 따른 노동생산의욕의 저하가 나타났고 노동시간이 늘어나 피로를 가중시켰으며 운영과정에서 공동식당의 운영 등에서 보이듯 비효율성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하부의 허위보고로 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생산품의 질적 저하와 농업생산활동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농촌의 생산

량을 저하시켰고 1959년에서 1961년까지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기아가 발생했고 다수의 아사자를 내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1959년 7월 루산(廬山)회의에서 평더화이(彭德懷)가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우파기회주의자로 몰려 실각하고 평더화이의 후임으로 린바오가 국방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향후 인민해방군내에서의 사상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되었지만 마오쩌둥 역시 대약진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 주석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1960년 갑작스런 소련의 플랜트 계약 파기와 기술자의 대거 철수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류샤오치(劉少奇)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재건을 위한 조정정책의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1960년 이래 마오쩌둥의 정책이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비판되며 류샤오치와 덩샤오핑(鄧小平)을 중심으로 조정정책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경제 통제와 정치통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조정정책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생산목표와 속도가 완화되었는데 인민공사는 생산대대20-30호로 완화하고 경지의 5%안에서 개별 농가가 자유롭게 경영하는 자류지와 자유시장, 손익의 자기부담과 농가의 생산청부제라는 삼자일포(三自一包)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운영 폭이 확대되면서 생산의욕이 향상되자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공업 중심에서 농업부분의 투자를 늘리자 소비생활이 증대되었으며 도시에서도 기업의 경영 자주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1963년에서 1965년까지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白猫黑猫論’ 즉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경제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다시 농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관료제적 중앙집권주의와 전문화가 다시 강화되었다. 대중들은 4개의 선호품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에서는 낭비와 도박, 매매혼 등 불건전한 경향이 다시 발생하자 마오쩌둥은 이러한 불평등적 요소와 경제중심적 사고에 대해 1962년 당내와 사회에 집단주의 정신을 불어 넣고자 사회주의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린바오의 인민해방군이 희생과 헌신을 내세워 1963년 레이펑(雷鋒)을 배우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마오쩌둥의 어록과 주석을 발간하면서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공산당 내의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정책의 시행 속에서 마오쩌둥이 실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다.

2.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에 걸친 사회전반의 투쟁으로 사회 정치생활을 왜곡시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시킨 실패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혁명이었다. 자본주의적 사상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한 것으로 문화대혁명이라고 지칭하지만 권력투쟁과 계급투쟁을 포괄한다. 문화대혁명은 경제적 발전보다 계급투쟁의 의식화라는 문화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그 이상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컸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당 내의 권력투쟁, 중국이 급격하게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 및 대외적으로 중소간의 갈등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긴장관계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은 이미 1962년 경제회복기 내 중국공산당 8기 10중 전회에서 마오쩌둥이 과도기 계급투쟁론을 발표하였을 때 배태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1956년 사회주의건설의 완료를 선언한 공산당은 이미 중국사회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전사회에서의 계급 기복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료와 같은 특권을 지님으로 계급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급은 의식과 사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향후 계급투쟁이 복잡하고도 폭력적인 양상을 초래하였다.

1964년 이상주의적인 청년활동가를 훈련해 공작대로 농촌에 파견해 부패나 독직을 저지른 지방정부 간부와 과거 지주, 부농의 자식이면서 당간부와 연계되어 권력을 얻은 자를 비판 하는 사청(四清)운동이 전개되고 도시에서도 기업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청년단을 조직하는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문화대혁명시기의 조반(造反)과 영구혁명의 실천과 유사했다.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조정정책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자 마오쩌둥은 이들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인 주자파(走資派)이며 소련의 수정주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간주하며 이들로부터 권력을 탈환한다는 문화대혁명을 전개

하고자 했다. 1965년 4인방의 일원이 된 상하이(上海)의 야오원위안(姚文元)이 <신편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함>에서 문화대혁명은 시작되었다. 우한(吳翰)의 해서파관은 명대의 충신 해서가 황제에 간언하다 파면된 사건을 다루고 해서를 높이 평가한 작품인데 야오원위안은 해서를 대약진을 비판하여 해임된 평등화이로 황제를 마오쩌둥으로 비견하여 비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우한을 공격하고 이로 인해 실권파였던 베이징 시장 팡젠(彭真) 등이 실각하였다.

1966년 5.16통지를 통해 5월 문혁을 전개할 기관으로 중앙문혁소조가 결성되어 4인방의 일원인 장칭(江青)과 장춘차오(張春橋)가 포함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린바오와 함께 문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마오의 구호에 10대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紅衛兵)이 부응하여 향후 2년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홍위병은 당이 아닌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며 베이징에 몰려들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 홍위병은 노동자 농민과 함께 조반유리造反有理(혁명에는 이유가 있다)를 외치며 탈권脫權(권력탈환)투쟁에 앞장 섰고 이미 국방부장 린바오가 1964년 마오주석 어록을 발간하여 군대에서 사상학습이 벌어진 상태여서 마오쩌둥 숭배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홍위병들은 마오주석의 어록을 흔들며 그를 대신한 손오공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66년 8월 홍위병은 마오쩌둥의 16조 발표²⁾로 마오쩌둥의 사구(四舊)(구사상, 구습관, 구풍속, 구문화)를 타파를 하고 당내 부르조아층에 대한 배격을 지시하는데 더욱 고무되어 주석의 소책자를 들고 고대의 유교경전에서 현대의 베토벤 음반까지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관료와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류샤오치는 제국주의와 수정주의, 국민당의 반동파의 앞잡이로 몰려 당에서 영구제명 된 뒤 1968년 사망하였으며 덩샤오핑은 감찰 처분을 받았다.

한편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의 차별구조의 형성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반우파 투쟁이후 출신성분과 정치적 성향으로 좋지 못한 계급이 된 사람들은 평생 불이익을 받게 되어 출신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홍위병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들이 급진파에 속한다. 반면 당관료의 자제로 구성된 공작조가 조직되어 출신혈통론에 따른 홍위병 내부의 분파투쟁도 벌어졌다. 그러나 농촌까지 홍위병의 파벌싸움의 무대가

2) 16조의 내용에는 보통선거제의 실시에 의한 인민공사의 설립 등이 보인다.

되고 전국에서 무차별적 공격과 파괴가 자행되자 홍위병의 해산이 요구되었지만 용이하지 않았다.

당에 대한 공격은 베이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967년 1월 상하이에는 상하이인민공사가 결성되는 등 노동자와 대중의 당관료에 대한 탈권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군대를 투입하여 대중이 아닌 당과 군대가 포함된 삼결합위원회로 대체하였다. 이후 문혁은 내전상황까지 우려할 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후베이(湖北) 우한(武漢)에서 7월 백만농사 노동자 조직이 군대와 손을 잡고 중앙의 문혁소조에서 파견된 소조원을 감금하고 무장시위를 벌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생산도 정체되고 소련의 군사침입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실권파의 제거라는 성과를 얻자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였다.

인민해방군을 개입하여 1968년 홍위병이 처음 결성되었던 베이징 대학에서 홍위병의 해산이 선언되고 청년들은 하방 되었다. 1700만의 도시청년들은 이후 스스로 잃어버린 세대로 간주하며 농촌생활의 고난과 빈곤 속에서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1969년 상반기까지 군대에 의해 전국의 급진파가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진압과정에서 희생되었다. 또한 상하이의 인민공사가 대체된 군인, 간부, 대중의 삼결합위원회의 형태인 혁명위원회가 지방에서 재건되면서 군대가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1969년 9차 당대회에서 군대를 대표하는 린바오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등장하고 중앙위원 170명 가운데 40%를 인민해방군 간부가 차지하였다. 당관료로부터의 권력탈환을 목표로 한 문혁의 초기 목표는 군대를 끌어내고 기존 정치절차의 파괴만을 초래하면서 야만적인 파벌주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린바오가 몽골 상공에서 의문의 비행기 추락사를 맞았다. 517공정기요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린바오가 마오쩌둥을 암살하려 했다고 설명되었지만 현재까지 의문에 쌓여 있다. 이는 군을 배경으로 한 린바오가 고립되고 소련과의 관계악화, 인도와의 국경분쟁 등에 직면한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로 미국과의 수교를 모색하게 되는 반소친미 과정과 저우언라이 등의 경제회복이 주장되면서 마오쩌둥과 린바오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상하이コミュニ케의 발표 이후 미국과의 정식 수교는 1979년에 이루어졌지만 미국과의 무역거래는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외교정책은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73년 1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저우언라이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이 승인되어 4개 현대화가 선포되고 헌법이 제정되어 공산당의 지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다시 군대에서 당관료가 중앙위원회의 대표를 차지하게 되었다.

1974년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은 린바오와 공자를 봉건적 인물로 함께 비판하고 마오쩌둥을 중앙집권화와 국가 단결을 이룩한 진시황으로 비유하여 린바오의 실각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운동과정에서 저우언라이와 사인방을 대표로 하는 구관료와 신관료간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덩샤오핑을 복권시켜 경제부흥정책을 펴나가던 저우언라이를 동시에 공격하였다.

1976년 1월 저우언라이가 사망하고 화궈펑(華國鋒)이 국무원 총리직을 대행하게 되자 덩샤오핑에 대한 비판운동은 더욱 본격화 되었다. 베이징 시민들이 4월 4일 청명절에 저우언라이를 추모하는 4·5운동(1차 천안문 사건)을 일으키자 사인방은 시위의 책임을 덩샤오핑에게 겨누어 그를 실각시켰다. 그러나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화궈펑과 사인방 반대파 연합이 10월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문화대혁명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10년간 진행된 문화대혁명은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전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강고한 관료주의만을 남겨 놓았다. 행정의 간소화, 5.7간부학교의 활용을 전개하였지만 관료주의를 약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료주의를 대체하거나 감시할 인민의 기구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정치적 계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우상숭배의 극대화만 나타났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였는데 1973년 성단위의 노동조합과 전국총노동조합이 부활되었지만 당의 통제는 여전하였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규율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엘리트 교육의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의 평등이 제기 되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지 못하였다.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은 문화적으로도 척박한 반계몽의 시대에 머물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문혁은 새로운 사회구조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괴에 그쳤다.

Ⅲ. 개혁개방과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평가와 토론

1) 공산당 정부의 평가

1981년 중국공산당 11기 6중 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로 공식적으로 문화대혁명과 마오쩌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결의>에서 문화대혁명은 당, 국가, 민족의 내란이었고 마오쩌둥은 공적은 첫째이나 오류는 둘째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인간적 실책의 가능성을 통해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찾고 동시에 마오쩌둥의 건국에서의 위치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었다.

2) 마오쩌둥 시기에 대한 노스텔지어 및 우상화(1990년대 후반에서 2천년대)

3) 반현대성의 현대화- 신좌파

4) 마오시대의 문화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반성- 민간사회주의의 계승

<참고문헌>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엮음, 『사회과학도를 위한 중국학 강의』, 인간사랑, 2015년 2월

구보 도루 지음, 강진아 옮김, 『중국근현대사4 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삼천리, 2013.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2』, 서울: 이산, 2004.

신성곤, 윤혜영 지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아마코 사토시 지음, 임상범 옮김,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서울:일조각, 2003.

조나단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서울: 이산, 1998

첸리첸 지음,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1949-2009』,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2

한국고등교육재단, 『중국, 새로운 패러다임』, 한울, 2016.1